

국별 리포트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87천km ²	G D P	490 억 달러(2009년도)
인구	8.80 백만명(2009년도)	1 인 당 GDP	5,570 달러(2009년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anat(1993년 도입)
대외정책	친서방외교	환율(달러당)	0.80(2009년도)

- 1991년 독립이후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소수 권력층과 일부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 해 연안의 요충지에 위치한 데다 석유(세계 20위)와 천연가스(세계 25위) 생산 및 경유지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친서방외교를 표방하고, 러시아, 이란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은 미해결 상태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제성장률	24.3	30.5	23.4	11.6	9.3
재정수지/GDP	-2.3	-4.6	-5.5	-6.1	-8.2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8.3	16.7	20.8	1.5

자료: IMF 및 EIU.

□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2005~07년 기간 중 20~30%대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2008년 하반기 이후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10%대로 떨어지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석유수출 수입(收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2009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9년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전년 대비 13.5%나 확대되면서 유가하락과 대외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9.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석유 생산은 BP가 운영하는 Azeri-Chirag-Guneshli(ACG) 유전에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에는 석유생산이 2009년 5,040만 톤에서 5,250만 톤으로 증대될 예정이고, 유가상승과 대외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9.8%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유가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2009년 배럴당 62달러에서 2010~11년 배럴당 75.5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 성장둔화 유가하락 영향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급격히 하락

- 2008년 평균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년 내 최대인 20.8%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1.5%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2009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상품가격이 하락한데다, 국제유가 하락이 수출액을 감소시켜 물가상승 압력이 저하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2010년에는 에너지 및 상품가격 상승, 대내외수요 증가,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 지속 등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3.9% 포인트 상승한 5.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2009년 재정수지 적자 악화

- 2009년 예산안은 2008년보다 사회보장 지출과 자본투자를 증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유가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하자,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가 8.2%로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예산안은 세입을 100.2억 마낫, 세출을 112.6억 마낫으로 작성하여, 적자가 12.5억 마낫(15.6억 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GDP의 3.9% 수준임.
 - 2010년 예산안은 유가를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작성되었으나 2010년 유가는 배럴당 78달러 수준(브렌트유 기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정책

□ 석유와 가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 석유 및 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붕괴된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부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

- 에너지부문이 2008년 기준으로 수출의 97.1%를 차지할 만큼 산업구조의 편중이 심해 구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성을 안고 있음.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보유

- 카스피해 지역은 중동,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매장지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1년 독립이후 거대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석유 매장량은 70억 배럴(세계 20위), 천연가스는 42.3조 ft^3 (세계 25위)로 확인되고 있음(2008년 말 기준)

□ 유럽시장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가능성

- 세계 최장 BTC송유관(아제르바이잔 Baku-그루지야 Tbilisi-터키 Ceyhan, 수송능력 100만 b/d)을 통해 2005년부터 원유 공급을 시작하였음.
- 2006년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본격화한 SCP(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은 Baku-Tbilisi-터키 Erzurum를 관통하며, 연간 80억 m^3 의 수송능력을 가짐.
- 현재 신규로 추진 중인 Nabucco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면, 동국은 장기 안정적으로 가스 수출을 증대시키고, 통관료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
- 서방측이 이처럼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정치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자주 중단되기 때문임.

□ 2010년 가스수출 확대될 전망

- 100억 m^3 의 가스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터키에 66억 m^3 의 가스를 매년 수출하고 있으며, 그루지야에도 소량 수출 중임. 샤테니즈 가스전의 생산량은 1단계의 86억 m^3 에서 2010년에 완성되는 2단계에는 200억 m^3 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와 이란은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러시아에는 2009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존 가스관으로 매년 10억 m³을 수출할 계획이며, 이란과는 2010년 1월 중순 가스수출 계약을 맺음.

□ 지방 인프라 시설 구축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석유와 가스 산업 수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회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 인프라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부문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2010년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유가가 2009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정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며, 국가석유기금(SOFAZ)를 통해 사회보장지출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이 조달될 것임.
 - SOFAZ는 인프라 구축과 빈곤개선, 산업다각화를 위해 에너지 수출관련 수입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기금임.

□ 2010년 산업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일 전망

- 2010년 1월 말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는 비석유부문(농업,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성장동력인 석유와 가스생산이 10년 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15~20년 내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업 다각화는 아제르바이잔의 미래에 필수적임.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비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노력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2010년 하반기에 아제르바이잔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전략과 액션플랜을 밝힐 예정이며, FDI 유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농업과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잠재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대폭 감소

- 2009년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56% 감소한 72억 달러(GDP의 12.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대부분은 석유 및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2008년 230억 달러에서 2009년 123억 달러로 줄어들었음.
- 2009년 수출은 192억 달러, 수입은 68억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이 각각 53%, 32%를 차지함.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교역국은 이탈리아(18.8%) 미국(9.7%), 러시아(8.7%), 프랑스(7.1%), 이스라엘(6.3%), 터키(4.9%)임.
- 2010년에는 유가상승과 대외수요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1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생산량이 증가하여 2010년 수출량이 2009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에는 투자자본유입이 증가 하면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 수준만큼 수입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2009년 외환보유액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 증가세 회복될 전망

- 고유가 상황에서 지속된 석유수출 증가로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까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음. 2010년 유가상승과 대외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1,178(2005)→6,467(2008)→5,364(2009)

- 외환보유액은 2009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6.8개월로 2008년의 4.8개월에 비해 오히려 개선됨.

□ GDP 대비 크지 않은 외채규모

- 동국은 본래 외채규모가 크지 않고 변동도 심하지 않은 편이며, 2009년 말 총외채잔액은 24억 달러로 GDP 대비 4.2%에 불과한 수준임.

□ 단기 외채상환에는 어려움 없을 전망

- 외채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비해 최근 수년간 석유 및 가스의 대폭적인 수출증가로 외환보유액(2009년 말 54억 달러)이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총수출 대비 외채원리금상환액(DSR)도 최근 3년간 1%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167	3,708	9,019	16,454	7,235
경 상 수 지 / GDP	1.3	17.7	30.7	39.4	12.9
상 품 수 지	3,299	7,745	15,224	23,012	12,337
수 출	7,649	13,015	21,269	30,586	19,154
수 입	4,350	5,269	6,045	7,575	6,817
외 환 보 유 액	1,178	2,500	4,273	6,467	5,364
총 외 채 잔 액	1,815	1,986	3,021	2,641	2,376
총 외 채 잔 액 / GDP	14.0	9.6	9.2	5.4	4.2
D S R	4.3	3.0	1.9	1.6	1.5

자료: IMF 및 EIU.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알리에프 장기집권 토대 마련과 신아제르바이잔당의 지방선거 승리

- 야당의 국민투표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에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일함 알리에프 (Ilham Aliyev) 대통령(47세)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
- 2009년 12월 지방선거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의 신아제르바이잔당(New Azerbaijan Party: NAP)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2010년에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동유럽 지역의 석유 수출국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았음. 또한 정부가 2009년 중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를 완화시킴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종교법 개정 이후 갈등 확대

- 2009년 5월 시행된 종교법(law on Religious Freedom) 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종교단체와 당국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개정 이후 모든 종교단체는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되었으며, 헌법의 종교관련 내용 역시 개정되었는데 인간 존엄성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종교를 확산시키고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 1월 말에 정부는 80명의 이슬람 종교단체인 Nurcular의 회원 80명을 감금한 바 있음. 경찰은 Nurcular 회원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148권의 금지서적을 압수하였음.
- 2010년 2월 13일 수도인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이슬람당(Islamic Party of Azerbaijan: IPA) 행동주의자 100여 명이 도시 한 가운데서 예언자 모하메드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행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였음.

- 정부는 종교법 개정이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한 위협을 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외교

-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적으로 친서방 경향을 띠고 있으나,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들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함.
- 서방은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를 확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면서 동 지역의 원유와 가스를 러시아를 우회해 서방으로 수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송루트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동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 협력 주도권을 서방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2008년 7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동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 노력을 벌이고 있음.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 재발 가능성 존재

-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1994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8년 재선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토통합성을 전제로 아르메니아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분쟁 재발 가능성이 대두되었음.
- 2010년 2월 알리에프 대통령이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한편, 아제르바이잔과 동맹국인 터키는 영토분쟁을 이유로 아르메니아와 오랫동안 국교를 단절하였으나, 최근 들어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없이 에너지 수송의 주요 경유국이 될 수 없어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터키와 아르메니아 양국은 지난해 10월 근 1세기에 가까운 반목을 접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교 수립 의정서와 관계 발전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의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음.

VI.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0. 3)	C3 (2009. 4)
OECD	5등급 (2010. 1)	5등급 (2009. 1)
S&P	BB+ (2008.12)	
Moody's	Ba1 (2006. 9)	
Fitch	BB+ (2007. 2)	BB (2004.11)

- I.C.R.G : 47/140('09.2) → 28/140('10.2)
- Euromoney : 72/186('09.3) → 73/186('10.3)
- I.I. : 79/177('08.9) → 77/178('09.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A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Hermes: 제약조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과중하지 않은 외채규모 및 구조와 충분한 외채상환능력

- 정부의 신중한 외교정책으로 외채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가, 대부분이 양허성이거나 그에 가까운 조건의 차관임. 2009년에는 총외채잔액이 소폭 감소한 데다 GDP규모도 증가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전년에 비해 개선됨.

- 총외채잔액의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석유수출로 급격히 증가하여 외채상환에 큰 부담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선언 등의 급작스런 태도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2009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앞으로 외채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연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단기 : 총지원잔액 1억 2,280만 달러(연체잔액 0.08%, 10만 달러)
 - 중장기: 총지원잔액 15억 3,320만 달러(연체잔액 0.81%, 1,240만 달러)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규모는 크지 않음

- 2009년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임.
- 2008년 수입액은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임.
-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규모도 2009년 말 누계기준으로 9건, 3,224천 달러로 크지 않음.

□ 2007년 이후 한국-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강화

- 2007년 4월 알리에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총 15건의 계약(MOU 포함)이 체결돼 양국간 호혜적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2008년 5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쌍방향 자원외교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SK C&C,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사업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

<표 4> 한-아제르바이잔 교역규모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130,307	254,747	149,557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수 입	315,648	12,422	9,035	알루미늄

V. 종합의견

- 석유가스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2009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석유와 가스의 생산증가로 9.3%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됨.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를 넘어서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음. 외채규모가 작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3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3선 금지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알리에프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 토대가 마련되고 12월 지방선거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의 신아제르바이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단,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불안요소가 존재함.

조사역 고 안 나(☎02-3779-5654)

E-mail : anna@koreaexim.go.kr